

# 남편의 실직에 대한 아내의 경험 연구\*

## A Study on Wives' Experience of Unemployment of Their Husbands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류 경 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Ryu, Kyung-Hee

###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how wives experience their husbands' sudden loss of job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married women whose husbands lost jobs. Each person was interviewed for 3 to 4 hours, between June and August 2003. The wives tended to see the husband as someone who gave them a hard time, yet whom they still had to rely on. In addition, the husband was another difficult problem that they had to deal with, because they had to watch the husband struggle to adjust following the distressing event. Some wives blamed themselves for the unemployment of their husbands and were pained for their husbands' adversity. The wives also had the challenge of taking up a job to support the family. Their marital life became tougher and more conflicts emerged. The wives often alienated their husbands from the rest of the family unintentionally, or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heir husbands by leaving home. Yet, they returned home in the end, and tried to find hope, by taking a different perspective and looking at the bright side of life, by finding the value of her existence, through faith, and by reaffirming love for the husband and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실직 남편의 아내(wives of unemployed husbands),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

### 1. 서 론

가장의 경제력 상실은 가족 성원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족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족 모두에게 파급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직 가정들은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고혈압 등의 신체적 이상이나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초조,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수치심, 열등감,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위험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eckett, 1986; Kessler et al, 1988). 심리적으로는 자존감의 손상과 함께 우울, 분노, 수치

심, 열등감,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약 3.5배 이상의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et al., 1987), Liem & Liem(1988)은 실직이 주는 심리적 영향을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실직으로 인한 아내의 심리적 증상은 남편의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남편보다 4개월 후에 더 늦게 노출되고, 그 정도도 남편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한 가정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Jones,1991).

이러한 실직 가정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는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Liem & Liem, 1988; Vosler & Page-Adams, 1996). 즉 가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가족성원들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배우자가 실

\* 이 논문은 2003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류경희 (E-mail : ryukh@changwon.ac.kr)

직 가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Dail, 1988). 또한 실직한 가장의 배우자도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Jones, 1991).

남편의 실직은 당사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제력을 상실한 가장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아내에게 생계형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만들며, 부부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써 이혼이나 별거,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등의 가족 해체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Liem & Liem, 1988; 국민일보, 2001). 실제 조사에서도 실직 이후 부부간의 대화가 줄거나(69.4%), 싸움이 잦아지고(72.6%), 성생활이 감소했다(65.4%)고 응답하여 부부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선일보, 2001), 2000년 서울 여성백서에 따르면 남편의 실직 등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서울 7.7%, 전국 7.1%로 나타나 90년 2.3%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1).

한편 실직이란 사건은 실직 전에 누려왔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을 끊어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오경자, 1998). Shams(1993)는 실직 후 가족들의 지지가 실직자들의 심리적 건강 유지에 기여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으며, Voydanoff와 Donnelly(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스트레스 완화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한 남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Shams, 1993),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실직자는 높은 관계 만족도를 나타냈고, 실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덜 지적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Walsh & Jackson, 1995).

이와 같이 가족성원의 한 사람인 남편의 실직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남성의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은 배우자 및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직이라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회적 지원보다도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살펴볼 때, 실직자의 배우자들은 스스로 위기 극복의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가족 위기극복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봉착하고 있다. 가족은 실업충격 완충장치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망 장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실직 가장의 아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최규련, 1999).

실직 가장의 아내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직 가장의 아내들에 초점을 맞추어 실직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 실직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그동안 이루어져온 실직가족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략 실직이 부부관계, 가족생활,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자녀

등 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실직 남성 가장 또는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 실직자 또는 실직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 남성의 실직 경험에 관한 연구, 실직자 아내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대처방법들을 파악한 연구 등이 있다.

실직가족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직이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는 조성희(1999), 이민경(2000), 김용숙 외 2인(1998), 김양희 외 6인(1999)의 연구가 있다. 조성희(1999)의 연구에서는 실직이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이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실업은 실직자의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긴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는 실직 경험이 있을수록, 실업이 비자발적일수록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직 이후 부부의 이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부부사이의 긴장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2000)은 실직경험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 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실직을 경험한 남편은 실직의 경험이 없는 남편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아내 구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 의사소통은 남편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이는 낮은 아내구타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숙 외 2인(1998)은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를 연구하여 가장의 실직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각 가정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끼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혔다. 실직가정의 경우 부부 응집도, 부부 만족도 등 부부관계가 실직하지 않은 가정보다 좋지 않았고, 경제적 압력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서 식생활영역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실직 후의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희 외 6인(1999)의 연구에서는 가장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따라 실직 후 가정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남편의 실직은 생활수준의 감소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상의 문제와 주거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하며, 생산/단순 노무직에 종사한 가계가 사무관리직 가계보다 금융자산의 감소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주택부채상환부담과 이웃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실직 후 가정폭력의 빈도와 폭력의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 없이 실직 가정 모두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생산/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였던 실직자들이 사무관리직 실직자들에 비해 긍정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위와 같은 연구 외에도 장혜경·김영란(1999)의 연구에서는 실업이 실직자 가정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들은 무엇이며, 실직에 대한 가족의 적응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히면서 가족의 결속력 강화와 안정 및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과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실직이 부모자녀관계 및 청소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로는 정진백(1999), 정혜경(1999), 정환구(1999), 류진아(1999) 등의 연구가 있다. 정진백(1999)의 연구에서는 실직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정특성과 자아개념을 비교하였는데, 실직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정특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가정의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도덕적, 사회적 자아에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1999)의 연구에서는 실직가정을 비 실직가정과 비교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측면에서 아버지 행동, 부모양육태도, 가정 분위기,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비실직 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실직가정의 아동은 아버지행동, 아버지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가족결속력 역시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우울수준과 불안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가정 중에서도 어머니가 비애정적인 가정에 비하여 어머니가 애정적인 가정의 자녀는 우울수준과 불안수준이 낮았다. 정환구(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직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가 실직한 경우 가족의 응집력과 표현력은 감소하지만,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실직한 가정의 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실직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정체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류진아(199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의식, 직업관은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실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하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실직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은 보수를 더 고려하였고, 아버지의 실직 경험이 없는 집단은 자신의 흥미를 더 고려하였다.

한편, 실직 남성 가장 또는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로는 성혜영(1999), 조희선(2000)의 연구가 있다. 성혜영(1999)의 연구에서는 실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원이 적을수록 재정적 자원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심각성을 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문제 해결적 대처 수준이 높고 정서적 대처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또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친구와 친척의 정보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선(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자원, 대처가 그들의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여성 가장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족 스트레스는 정적 영향을, 가족결속력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결속력은 여성 실직 가장들의 신체화 증상과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학자들에 의한 실직자 또는 실직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실직여성 가장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정지 등,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박현선, 2000) 연구 등이 있다. 실직여성 가장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정지 외 4인(2000)의 연구에서는 실직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1회당 4시간씩 총 5회, 또는 1박 2일 마라톤 과정으로 진행되는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여성 가장의 자아존중감과 생의 목적 등 생의 의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박현선(2000)은 실직 가정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지원방안으로서 적응 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기술, 자기 유능감, 계획성,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고, 표현력이나 자기주장,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해나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한 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실직자 또는 실직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노동부나 한국여성상담센터나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이 있고(<http://www.work.go.kr>), 주로 여성 실직 가장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한국여성상담센터나 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는 남편이나 자녀의 실직으로 고통받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직으로 인한 가족체제 방지교육 프로그램>, <재취업교육>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울 YWCA에서는 <실직여성 가장 재교육 프로그램>, <실업 충격 완화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한겨레 신문 1999a; 한겨레 신문, 1999b). 이외에도 사회복지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는 남성, 여성 실직 가장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한국경제, 2000). 이상과 같이 노동부,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자들이 개발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히고 연습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성의 실직 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경(2000)의 연구가 있는데,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중년남성들이 겪는 실직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중년남성의 실직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 중년남성의 실직경험은 실직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희망과 꿈

을 추구해 나가는 역동적인 경험이다.

실직 가정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규련(1999)이 실직자 아내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우울감, 심리문제 해결 지원 요구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연구결과 아내들은 가족의 부정적 변화 중 특히 남편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는데, 남편의 폭력은 실직하기 전에 비해 실직 후 10.8% 증가하였고, 그 빈도와 정도도 증가하였다. 실직에 대한 남편의 대처행동은 직업훈련, 구직, 취미생활 등이 많았고, 놀고 지냄, 술·담배 사용증가 등의 부정적인 대처가 20-30% 였으며, 이에 대해 아내의 40%는 불만을 나타냈다. 아내의 문제 대처방식은 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아내들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대처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부부간의 갈등문제, 부부간의 대화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문제, 부부간의 대화개선, 자녀지도와 대화개선에 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거나 남편, 부부관계, 가족전체 등에서 부정적 변화를 많이 겪는 경우, 우울감이 높은 아내들이 그렇지 않은 아내들보다 면접상담, 교육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실직가족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는 주로 실직이 가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연구나,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 실직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중년 남성의 실직 경험을 다룬 논문이 한편 있을 뿐이다. 또한 주로 실직 당사자인 남성 가장이나 여성 가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실직 남편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등을 연구한 논문이 한편 있을 뿐으로, 배우자의 실직 상황을 그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직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 남편의 실직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심층면접을 통하여 탐색함으로써 실직한 남편을 둔 아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가족구성원들의 주관적 경험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므로(Gilgun, Daly & Handel, 1992),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접근방법은 개인 및 가족생활의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들추어내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나, 질적 조사방법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어 어떠한 사실도 당연시하지 않고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을 체

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Gilgun, Daly & Handel, 1992; Taylor & Bogda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실직이라는 가족 사건을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연구자의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해석하는 질적 연구가 더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제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 복지관에서 2001년에서 2003년 2월까지 실직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세·관리비 지원 사업 시 지원 신청서를 냈던 실직가족 명단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얻었다. 지원 신청서를 통해서 57가구가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고, 가장인 남편이 실직을 하였음을 파악하였고, 이들 57가구에 연구자가 일일이 전화하여 접촉하였다. 전화 접촉 시에는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약간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57가구 중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전화가 변경되어 있는 가구도 있었고, 전화 연결이 되었더라도 그동안에 남편이 취업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여전히 남편이 취업해 있지 않아도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에 응할 시간이 없거나, 아이가 어리고 맡길 데가 없어서 면접을 하기 어렵다거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면접이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내들이 면접을 거절하였다. 결국 57가구 중에서 실직 남편을 둔 8명의 아내들만이 면접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중에서도 2명은 후에 생계를 위한 일거리가 생겼으며 면접을 취소하였고, 최종 6명만이 면접에 응하였다.

2003년 6월~8월 사이에 제보자들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1사람 당 1회 3시간~4시간 동안 면접을 실시하였다. 장소는 연구자가 있는 대학교의 가족상담교육실 또는 정보제공자가 사는 집 근처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접 시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고, 제보자와의 신뢰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연구목적에 국한하여 대화하기보다는 이런 저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다 점차 남편의 실직상황에서의 경험으로 좁혀 나갔다. 면접은 크게,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남편의 실직배경, 남편의 실직에 대한 아내의 심정 및 생각, 실직한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의 실직 후 달라진 가족관계,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 등을 알고자 하는 연구자의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면접 질문들은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여 남편이 실직하시게 되었나요?', '남편이 실직하였을 때 심정이 어떠하셨나요?', '남편의 실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직한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직한 남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의 실직 후에 부부관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남편의 실직 후에 가정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나요?',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데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나요?',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힘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인가요?' 등이었다.

6명의 제보자들에게 일률적이고 상투적인 똑같은 문구의 질문을 던져 질문하기 보다는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

라 다양한 표현으로 질문하였다.

면접 내용은 제보자들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고, 필사본을 작성하였다. 기록된 제보자와의 면담 내용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읽으면서 제보자가 경험한 것들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필사본에서 제보자의 경험이나 주제적 진술, 제보자에 의해 사용된 구와 용어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요하고 간략한 단어만을 짧게 응축하여 기록하거나 좀 더 확장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기록해가면서 반복하여 읽었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조직하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 활용될 주제영역을 찾기 위해 기록해 놓은 자료들 간의 유사성과 상호관련성을 결정하면서 소 주제영역으로 묶었고, 소 주제영역들 간의 유사성과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다시 중 주제 영역으로 묶었으며, 중 주제 영역들 간의 유사성과 상호관련성을 결정하면서 또 다시 대 주제 영역으로 묶었다. 이와 같이 면담 내용을 분석하면서 보다 함축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 주제, 중 주제, 대 주제 영역을 찾아 나가면서 본질적인 주제를 찾았다.

제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 연령은 40대가 4명, 30대가 1명, 50대가 1명이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1명, 중졸이 1명, 고졸이 3명, 무학이 1명으로 대부분 40대에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주거형태는 전월세가 4명, 전세가 1명, 자택이 1명이었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 이하가 2명, 60~100만원 이하가 1명, 110~150만원 이하가 3명이었다. 가장인 남편의 실직기간은 3년~5년인 경우가 4명, 7년~10년인 경우가 1명, 15년 정도 된 경우가 1명이었다. 남편의 실직 전 최종 직업은 건축업인 경우가 3명, 자영업인 경우가 1명이었다고 기업체에 다닌 경우가 2명이었다. 가장인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문정숙씨는 생활용품 판매일, 고연숙씨는 학습지 판매일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하정미씨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 외 부인들은 현재 하는 일은 없었으나, 일거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었다. 허상인, 하정미씨 남편은 몸이 안 좋아 현재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남편들은 대부분 가구 배달일, 일일노동 등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 III. 남편의 실직에 대한 아내의 경험

#### 1. 남편이란 존재

남편의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남편이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때 아내들은 실직을 겪은 남편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힘들게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남편이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한편, 남편의 실직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를 탓하면서 남편을 '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

<표 1> 제보자 특성

성명	성별	연령 (본인/남편)	학력 (본인/ 남편)	주거형태	자녀	가족 월 평균 수입 (만원)	남편의 실직기간	남편의 최종 직업	현재 하는 일 (남편/부인)
허상인	여	49/55	무학/중졸	자택	1남(대4)1녀(대졸)	50	4년 6개월	기업체(두산 중공업)	무직/무직
고연숙	여	38/41	고졸/고졸	전월세(보증금 700만원, 월세 15만원)	1남(초6)2녀(3세, 초3)	60	3년	자영업(상 파는 가게 운영)	배달직/학습지 판매 영업
문정숙	여	46/47	고졸/고졸	전월세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2남(고1, 유치원)1녀(초3)	150	3년 7개월	건설업계에 종사	일일노동/생활 용품 판매
곽보경	여	48/50	고졸/고졸	전세(2000만원)	1남(초1)	150	5년	건설업계에 종사	일일노동/무직
박상희	여	40/43	중졸/중졸	전월세(보증금 600만원, 월세 11만원)	2남(초5, 중3)	30	7년 6개월	건설업계에 종사	일일노동/무직
하정미	여	51/52	대졸/고졸	전월세(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1남(고2)1녀(고졸)	110	15년	국영기업체에서 종사	무직/식당 일

\* 제보자의 성명은 가명으로 하였음

기도 한다. 또한 실직 당사자인 남편이 힘겨운 적응과정에서 겪는 분노와 무기력 등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당해야 하는 아내들에게 남편은 또 하나의 어려운 존재가 된다. 즉 실직 남편의 아내들에게는 남편은 '원망스러운 사람'이자 '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람'이면서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 1) 원망스러운 사람

남편의 실직은 아내들에게도 많은 충격과 놀라움을 주게 되는데, 아내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게 된다. 하정미, 박상희, 문정숙씨는 실직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무언가라도 해서 가족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더욱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고 한다.

하정미씨 남편은 ○○공단 관리청에 다니다 건축업을 하는 매형에게 어음 보증을 서주게 되면서 빚을 떠안게 되어 결혼 초부터 월급을 8년간 차압당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보증을 서 주면서 많은 빚을 떠안게 되어 결국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더니 협심증에다 간이 안 좋아지는 등 건강을 잃기 시작하여 생계를 위해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정미씨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남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난다.

근심 걱정에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남편)처다보면은 뭐 저런 게 있노 싶고, 아이고 우짜다가 내 신세 이렇노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 싶어서 좀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남편이) 한심스럽고 어찌서 저렇게 사느냐 싶고. 내가 만약 남편이면 저렇게 안 살긴데 이런 느낌도 많이 갖고.(하정미)

박상희씨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간헐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일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희씨도 남편의 실직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이 힘든 시련이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한탄하게 되었다. 게다가 남편이 일을 찾아보려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 없이 집에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든 다른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 많은 원망을 하게 된다. 내복이 그것밖에 안되어 그런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여전히 생계책임자로 남아 주기를 기대하면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힘든 가정상황을 박차고 생계를 위해 직업전선으로 처음부터 나설

용기가 없었던 박상희씨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다시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참 잘 풀리고 저렇게 잘 다니는데 꼭 나만 힘든 거 같아요. 다른 집은 설마 나 같이 이렇게 힘들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찾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냥 "일이 없어" 하면서 집에 이렇게 보통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꼭 그(건설)현장만 볼게 아니고 다른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집에 있을까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요. 보통 막 열흘 보름 그렇게 집에 있어 버리니까 이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내 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중략)... 남편이 저렇게 생활력이 없고 무능력해도 정말 나중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일이 정말 잘 풀리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못 버렸죠. 다음달에 돈을 갖고 오겠지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럼 또 그 달 지나버리면 다음달에 일하면 또 가져오겠지... (박상희)

문정숙씨 남편은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97년도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나자 실직하게 되었다. 문정숙씨는 남편이 실직한 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서 헤쳐 나갈 기반이 워낙 없다보니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았고 그냥 제 자리에서 곤두박질치는 느낌이였다. 게다가 남편마저 어떻게든 돈을 벌려는 노력이 없어 보이자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한다. 그래도 남편의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이 막노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제적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쉽게 놓지 못한다. 그러나 문정숙씨는 그런 기대마저 채워지지 않을 때 더욱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 댄에는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는 대도 워낙 기반이 없다보니깐 딛고 일어설 그게 없으니까요. 매일 그 자리에서 그제 자리 걸음 밖에 안 되고 자꾸 곤두박질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니깐 뭐 많이 힘드니깐 와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제 댄에는 꼭 돈을 벌어서 라기 보다 정말 막 일을 해서라도 단 돈 몇 만원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까지 라도 먹여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문정숙)

제보자들은 실직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남편 탓을 하면서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남편이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가족들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더욱더 남편을 원망하게 된다. 남편이 실직한 경우에 남편의 심리적 상태는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내들에게도 전이되는 경향을 보여(Liem & Liem, 1988; Vosler & Page-Adams, 1996), 아내들도 남편의 실직 상황에서 남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Dail, 1988). 또한 최구련(1999)의 연구에서는 실직 남편의 아내들의 77.7%가 불안·초조감을, 75.4%가 신경질과 화냄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을 살펴볼 때, 남편의 실직 상황은 아내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심리가 남편에 대한 원망의 형태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람

허상인씨와 고연숙씨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것이나 실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제보자였다.

허상인씨는 남편이 ○○ 중공업에 다니다 99년 12월에 목에 이상 증세가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신부전증이 합병증으로 오게 되면서 퇴직하게 되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야간 근무를 도맡아 하였고 매우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그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한탄스러웠다. 남편은 건강을 잃고 퇴직하게 되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허상인씨는 남편의 건강을 잘 챙겨주지 못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자책한다. 남편의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이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남편을 보듬어 안아야 할 사람은 자신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허상인씨는 정작 자신의 힘들음을 남에게 드러내 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다가 결국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도 하였다. 가족에게조차도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운 대가였던 것이다.

지금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 병나게 한 장본인은 나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남편이) 조금 (건강을 돌보면서) 자기 생활을 하게끔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건강악화가) 안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되니깐) 고마 세상을 포기하려고 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나도 속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로를 해줘야지 자기가(남편이) 포기할 상태까지 됐는데 내가 더 힘들게 하면은 (남편이) 너무 힘들죠. 내가 신랑을 절대 안 울려야지 건강한 사람이 울면은 우는 나도 이래 가슴이, 목이 터질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속 태우면서 울면은 저건 얼마나 나보다 더 아프겠노. 고만 말아야지 싫어. 내 혼자서 삭힐라니까...이 속을 누구에게 보여 줄 수도 없고..

한때는 (내가) 불면증이 걸려 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허상인)

고연숙씨 남편은 상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모부 회사에서 상 파는 영업직 일을 10년 이상 하다가 퇴사하게 되면서 상 가게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상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한 2년간은 그러저럭 잘 되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운영상의 적자가 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상 가게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가구점에서 월급을 받고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가구점에서도 1년 넘게 배달 일을 하였는데, 그 가구점도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만 나오게 되었고, 운영하던 상 가게마저 정리하게 되었다. 현재 남편은 가구점에서 다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하루 일하면 3, 4일은 또 일이 없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없는 집에서 셋째 아이까지 낳았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연숙씨는 매우 속이 상한다. 셋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당시 남편은 낳지 말자고 하였는데 자신이 낳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실직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고연숙씨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들게 되었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은 힘들어도 셋째 아이를 착하고 훌륭하게 키워서 나중에 참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겠다는 오기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남편은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보험이나 많이 넣어 놔라. 차에 치어 죽으면 산 사람이라도 잘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워 할 때마다 고연숙씨는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의 탓이고, 남편이 실직의 고통에서 빨리 헤어 나오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곧 죽어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보험이나 많이 넣어놔라. 차에 치어 죽으면 산은 사람이라도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항상 좀 웃기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예전에 활짝 웃고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웃게 해줘야 될텐데 내 책임인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주위에서 그러죠. 집도 없고 뭐 녀의 집에 살면서 뭐 할라고 하나(셋째 딸) 더 낳았냐고 그럴 때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그 당시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들이 10명중에 9명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연숙)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남편이 실직하게 된 원인이나 실적으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귀인 시키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최규련(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실직한 가정의 아내들이 스스로 자책감을 갖는 경우가 6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편의 실직 원인과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아내들이 스스로에게 귀인시킴으로써 상황을 견디어 나가려는 부정적인 방어기제라고도 보여진다. 즉 아내들은 남편의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 시키면서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 3)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람

실직 상황에서 남편들은 분노와 무기력, 상대방 탓하기 등의 심리적인 변화들을 경험한다. 실직을 경험한 가정들은 자존감의 손상과 함께 우울, 분노, 수치심, 열등감,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에 비해 약 3.5배 이상의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et al., 1987). 실직가족의 아내들은 가족의 부정적 변화 중 특히 남편의 부정적 변화를 가장 많이 지각한다는 최규련(1999)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실직가족의 아내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남편의 심리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고연숙씨는 남편이 실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였고, 화를 자주 내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남편의 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연숙씨에게는 또 하나의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남편이) 동창회도 전혀 안 가려고 하고... “저 새끼는 무슨 차 끌고 다니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 예. 자신이 내 처지가 이런데 어딜 간다 말이고 그냥 집에 있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래 안 살고 싶었는데 나도 멋진 놈인데 돈만 있으면 멋진 놈인데 이제 뭐 돈도 없고.. 나도 참 멋지게 살고 싶은 놈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략)....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고 좀 신경질 적이고 애들한테도 그냥 웃으면서 대화 할 수 있는데 그냥 뭐라 하기부터 먼저하고 화를 자주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유가 있고 하면 좀 사람이 느껴질 것 같아 예. 굉장히 조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게 좀 있어서 힘들어요. (고연숙)

문정숙씨는 남편이 실직할 즈음에 함께 사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도 싶었고, 집에서 놀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여보자는 마음에 시누에게 500만원을 뒀서 조그마한 의류점을 차렸

다가 장사가 안 되어 빚만 지고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의 실직과 맞물려서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옷가게를 빚만 남기고 처분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상황에 대한 원망이 모두 자신에게 쏟아지게 되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술 먹고 들어와서 화풀이하다 보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너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며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해 가며 문정숙씨에게 트집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도 힘든 일인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갈등을 일삼아야 하는 상황이 문정숙씨에게는 매우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다.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살림살이를 챙겨서 분가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집에 지내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남편이 문정숙씨 탓으로 돌리면서 문정숙씨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심정으로 답답함을 느꼈고, 자신을 스스로 지탱하며 버티어 나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또한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와서도 그 심적 괴로움을 있는 대로 표출해 내는데, 이러한 남편의 심적 괴로움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괴로움으로 다가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지난 거 들춰 가지고 뭐 이랬었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왜 나한테 원망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진짜 그 상황에는 매일 목이 퍽퍽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남자들은 술이라도 먹고 풀고 친구 만나서 죽이니 살리니 욕을 해 가면서라도 뭐. 물론 집에 들어오면 갑갑하겠죠. 나도 막 집에 있는 나도 정말 숨통이 막히는데... 본인도 괴롭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는 힘드니까 술 한잔 먹고 친구들과하고 떠들고 하소연도 하고. 그 힘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죽겠다 뭐 어쩔다 그 소리밖에 더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나는 더 죽겠거든요. (문정숙)

박상희씨 남편도 “너가 잔소리를 해서 바가지를 긁어서 그렇다”, “집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 되는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내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박상희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게 되면 부부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박상희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남편이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지 못할 때는 그 화살이 아이들에게 돌아가 아이들이 또 다른 화풀이 대상이 된다. 실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아빠에게 아이들은 ‘식사하시라는’ 말조차 하기 싫을 만큼 아빠를 멀리한다. 아내에게 다 하지 못하는 화풀이가 아이들에게 향하는 것에 대해 박상희씨

는 괴로워하고 있으며, 남편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을 때 오히려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보느라 무척 힘들다. 또한 집에서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술과 담배 살 돈으로 정말 필요한 다른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봐도 잔소리로밖에 통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술과 담배를 사다 주지 못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몹시 속상하다.

우리 집 아저씨가 집에 오면은 자기 일이 안되면 마누라한테 꼭 신경질을 부려요. 그것도 스트레스로 쌓이더라고요. 뭐 니가 잔소리를 해서 바가지를 끊어서 그렇다는 등 그런 식으로 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내가 많이 참다가 폭발이 되면 싸우게 되고 그래 되거든요. 술 먹고 참 나한테 많이 화풀이했어요. 집에 있어도 술 안 먹으면 안 되요. 우리 집 아저씨는 술 한 병 정도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꼭 하는데, 나는 그게 진짜 생활이 넉넉해 가지고 탁 탁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한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나는 이 돈으로 애들을 뭐 사줘도 큰돈이다.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중략).....나한테 화풀이를 못하면 그게 애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속이 참 많이 상하네요. 내가 딱 봤을 때는 일 할 때는 애들한테 잘 해주는데 자기가 집에 놀 때는 애들도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성격이 우리 집 아저씨는 자신감이 없으면 좀 화를 잘 내요. 내가 조금 거슬린 말을 못해요. 나도 그 눈치보고 비유 맞추려니까 정말 어쩔 땐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박상희)

실직한 남편들은 실직으로 인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고 무너져 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좌절감 등의 심리적 손상을 크게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심리적 어려움의 표출이 대화 등의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술을 마신다거나, 가족구성원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괴로움의 표출을 감당해야 하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란 존재는 그들의 심리적 괴로움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 2. 힘들어지는 부부관계

실직 전에 누리왔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이 끊어지면서 '가족 안으로 더욱더 움츠러드는 부부'의 모습이 보여 지고, 외부의 지원이 단절된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에서의 갈

등이 깊어지면서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의 갈등: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가 시도된다.

### 1) 가족 안으로 더욱더 움츠러드는 부부

실직을 경험한 가족들은 주변의 친구나 형제들과도 소원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허상인씨는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상대방도 만남을 꺼려하는 것을 느낀다. 형제간에도 연락을 하게 되면 실직하고 투병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게 될까봐 스스로 연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실직의 고통에 더하여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내가 돈을 벌 때는 밥을 사더라도 내가 못 내면 내가 내고, 내가 못 내면 내가 낸다 하는데, 아프고 실직하고 이래놓으니까 동료들도 다 떨어져 버리는기라. 또 돈을 벌적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형제간에도 돈을 못 벌고 투병 생활을 하니까 형제들한테 피해줄까 싶어가 참 전화도 하지도 안하고... 사람이 그렇대요. 내 형제간이고 친구 분들이고 다 이렇게 멀리 하는 기라. 그럴 때에는 본인(실직한 남편)은 더 마음이 아프죠(허상인)

박상희씨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 주위에서 가깝게 지낸 사람들에게 돈을 꾸게 되고 갚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잃어 거리감이 생기자 몹시 속상해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자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면서 집에서 터놓고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남편만 집에 혼자 남겨 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도 남편이 집에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실직한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집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게 된다.

나하고 친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나는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빌렸는데 제 날짜에 갚지 못해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난 나름대로 속이 상하지. 내가 남편한테 정말 돈 관계 때문에 좋은 사람들 다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다고 그러죠. 뭐 얻어먹은 것도 한 두 번이지... (중략).....집에서 이렇게 놀 때는 누가 오는 거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냥 큰방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정 형제간에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는데 자기가 거의 집에서 놀고 그래하니까 친척 오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런 면이 있

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막 스트레스 쌓이고 (남편이 집에) 없어야 밖을 나가도 마음편한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괜히 불안해 가지고 그러면 나도 집에 있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터놓고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박상희)

하정미씨도 남편이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어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친척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리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리감도 느껴져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가족 안에서만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게 된다.

실직하니까 우리 친정에서도 대하는 거 안 좋아지고 보는 눈이 벌써 안 좋아... 좀 무시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제가 뭐 뼈빠지게 노력하려고 이래 생각하지. 친구들도 학교 동창회 한다고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래하니까 친구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는 일만 해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살고 일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친정에도 잘 안 가고 친정에는 이제 다 좀 사는데 제가 최고 못살거든요. 가면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참 안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잘 안 가고... (하정미)

문정숙씨는 남편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도 큰 고통이지만 자신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 값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기 쉽지 않았는데, 시누에게 힘겹게 꺼내 놓았다가 돌아온 것은 시누의 짜증스런 태도였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남편의 실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서 시댁식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상처만을 주었다. 그래서 시댁식구들에게도 집안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분유 값이 없어서 정말 시누한테조차도 말하기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살 길래 그것도 없냐고 그럴 텐데.... 그래 가지고 어느 날 큰 시누가 하는 에어로빅 학원에 한번 찾아가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난 지금 그것도 안 잊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왜 왔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돈 있으면 한 2

만원, 3만원 빌릴까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올케는 그 돈도 없으면서. 자기도 뭐 때문에 없다고 그러던가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짜증을 내면서 하여튼 막 툭툭대고 가는데 지금 그 상황이 절대로 안 잊어버려. 자기는 잊어 버렸을 거예요.(문정숙)

이와 같은 결과는 실직한 남편들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실직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결과(Jones, 1991)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직이란 사건은 실직 전에 누려왔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 부분을 끊어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오경자, 1998).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가족 안으로 점점 더 움츠러드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Shams, 1993),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실직자는 높은 관계 만족도를 나타냈고, 실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덜 지적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연구결과(Walsh & Jackson, 1995)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실직 남편의 경우 아내로부터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살펴볼 때, 실직자의 배우자들은 스스로 위기 극복의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가족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봉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직이라는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아내들이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고 배우자에게 지지적인 자원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는 실직 남편의 아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안정의 문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다음과 같이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는 부부갈등이 표출되고 남편에게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종종 보여 진다.

## 2)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의 갈등: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오연숙씨는 남편이 실직을 하고 나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에 비하여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관계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실직이라는 상황에서 더욱더 표출된다. 또한 실직을 하고 나서 매사에 의욕을 잃은 남편이 가족끼리 함께 외출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기를 거절하게 되면서 오래 남편은 빼고 아이들과 자신만이 외출하다 보니 자신과 아이들은 늘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남편이 가족 안에서 은근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옛날에는 자주 안보니까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

는데 지금은 뭐 집에 주로 같이 있으니까 행동 하나 하나에도 터치를 조금씩 하죠. 아침에 나가버리고 저녁에 올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말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마~됐다, 모르겠다, 그만 해라.”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되지에....(중략)...제가 애기 아빠에게 어디 가자하면 “됐다 너희끼리 가라” 그러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다 보니 친구 모임에도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다음에는 저 친구는 빠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그래도 데리고 함께 가야 하는 데, 두 번 말해보고 거절하니깐 자동적으로 애기 아빠를 그렇게 외톨이로 만든 거 같아요. (고연숙)

박상희씨는 남편과 대화하기가 두렵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종종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 방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남편은 아이들과도 이야기하지 않고 식사도 혼자 하고, 아이들도 아빠와는 거리감을 둔다. 그러다 보니 부부사이가 좋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가족 안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일종의 따돌림 비슷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부간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 커지고,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점점 소외되어지는 모습을 띤다.

서로 힘드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면 바로 화해해야 되는데 서로 화해를 안 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우리 집 아저씨(남편)는 우리 집 아저씨대로 그냥 서로 한 삼 사일 막 이렇게 그제 긴 시간 같더라구예. 그래 서로 대화 안하고 그럼 애들도 그 며칠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라. 아빠랑 대화도 잘 안하고... 화나서 엄마가 딱 작은 방(아이들 방)에 있으면 애들 벌써 알고 아빠한테 안가요. 우리 집 아저씨도(남편도) 나하고 얘기 안 하면 애들하고도 딱 말 안하고 밥도 혼자 먹고 애들은 나하고 먹게 되고 근데 그게 또 남편을 생각하면 따돌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박상희)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남편의 실직 이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자주 부딪히게 되고 대화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친척이나 이웃 등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 남편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가족 안에서 은근히 남편을 소외시키게 되면서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가 조심스럽게 시도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실직 이후 부부간의 대화가 줄거나(69.4%), 싸움이 잦아지고(72.6%), 성생활이 감소했다(65.4%)고 응답하여 부부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결국 아내들은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몸부림으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실제로 최규련(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실직한 경우 아내들의 37.4%가 가출충동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박상희씨는 실직을 한 후에도 남편이 일거리를 찾으려는 의욕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는 책임감을 보이지 않자 남편과 종종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힘들어서 몇 번인가 가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가출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 다시 또 집에 들어오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남편에게서 벗어나기를 시도하였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다른데 이렇게 좀 알아보고 기웃거리고 해야 되는데 일 딱 끝나면 뭐 어쩐다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좋은 쪽으로 안 받아드리게 되더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둘이 부딪히고 싸울 때도 정말 안 살려고 옷을 몇 번 샀어요. 몇 번 집을 나갔었어요. 애들이 눈에 밝혀 가지고 애들이 어리니까 아른아른 하더라고 애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집) 나가 버리는 게 해결은 아니더라고요.(박상희)

문정숙씨도 남편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정말 함께 살기 힘들다는 극한 상황에서 가출을 시도하였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남편이 찾을 수 없도록 서울에 있는 친정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일체 전화연락도 하지 않고 성당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 실직의 괴로움과 아내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행동에 시달리고 사느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정신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이들과 가출을 감행하였는데, 결국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바람에 다시 남편과 대면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정숙씨를 달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문정숙씨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은 감정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힘들고 막 이러니까 손찌검도 많이 하고, 어느 날에 정말 이 사람하고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애들 셋을 데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냥 내가 저렇게 시달리지 않는 것 만 이래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나가 별에서 사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손찌검하고 애들 있는 데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에 눈이 정말 뒤집히더라고. 자식 때리는걸 보니까. 정말 너랑은 정말 아니다. 정말 오늘 안 나가면 빠져나갈 기회는 죽어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어떤 사람 전화 받고 잠깐 나가면서 꿈쩍 말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살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짐은 많은데 최소한 줄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성당 다니는 아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로 갔어요. 그리곤 없어졌거든요. 친정이고 친구도 뭐고 일체 연락 끊었거든요. 친정식구와 서울이라는 한 공간에 있는데도 친정 식구 보고 싶고 그랬는데도 아는 사람 쪽은 딱 끊고는 정말 (남편하고) 안 살 생각이었지. 내가 잠시 겁 줄 거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땐 너무 힘들었으니까 뭐 친정식구 총 동원 되가지고 찾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연락을 받고 나가는 바람에 만났는데 자기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조금 바뀌지는 것 같긴 했어요.(문정숙)

고연숙씨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한달 만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처가댁에 실망하였다는 이야기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고연숙씨는 남편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실직을 한 후에는 고연숙씨의 자신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더욱더 들춰지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뿐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남편이 실직을 한 후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너 가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남편을 이제는 편하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한다. 자신으로 인해서 실직한 남편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불행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를 생각하게 된다.

애기 아빠(남편)는 옷도 한번 사면 작지 않은 이상 색깔이 조금 안 맞아도 바꾸지 않거든요. 신발도 맞으면 신고 디자인이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사왔으니까 신거든요. 굳이 바꾸려가지 않아요. 그렇듯이 (제가) 그런 옷하고 신발하고 같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 정말 결혼 할 때도 서로 서로가 아주 좋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잘 못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혼여행 갔다와서 우리 집에 와보고 실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술 마시고 한 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표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내가 보내줘야 된

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난 이후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또 뭐 “오늘밤에 보따리 싸 가지고 가버려라.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있다하면 너 죽는다”는 식으로 말할 때 그 날 밤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죠. ‘아~정말 내가 떠나야 되는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애기 아빠가 돈을 못 벌 어쨌서가 아니고 바람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서로 좋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 같은 느낌 많이 들거든요. 애기 아빠도 불행한 것 같고 나도 불행한 것 같고... 떠나게 되면 남편이 왠지 웃음을 찾을 거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왠지 더 행복해 질 것 같고...(고연숙)

이와 같이 남성 가장의 실직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혼이나 별거,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등의 가족 해체 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2000년 서울 여성백서에 따르면 남편의 실직 등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서울 7.7%, 전국 7.1%로 나타나 90년 2.3%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국민일보, 2001)고 한다. 제보자들은 현재 실제로 이혼이나 별거,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등의 가족 해체 과정과 같은 극단적인 가족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사실상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현실에 대한 힘겨운 도전

제보자들은 남편이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쉽게 충족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위한 힘겨운 도전을 시작한다. 제보자들은 가족에 대한 생계 책임을 남자가 다하지 못하면 여자라도 스스로 나서서 그 책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연숙씨는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만, 자신만큼은 남편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이혼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고, 남자가 못하면 여자라도 나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정숙씨는 가족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기 극복의 힘이 강함을 인식하고 있다.

...주위에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오니까 이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남편보고 살림살이하고 여자라도 나중에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연숙)

남자들이 강한 것 같으면서 그렇지도 않거든요.

요즘에 다는 아니지만 정말 여자들이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헤쳐 나갈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문정숙)

그러나 생계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책임에 대한 부담과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과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생계 책임자로 나서는 힘겨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비롯된다.

문정숙씨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파출부, 출장 마사지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버는 적은 수입에 의존해 있는 아이들과 남편이 방안 가득히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계 책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진다.

어떤 집에서 하루 세 시간씩 파출부 일했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좀 배워서 그것도 했었구요. 오전에 그거(마사지 일)하고 저녁때 그 (마사지) 가방을 또 메고는 그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근데 돈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집에서 일(파출부 일)하면 한 달에 35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35만원을 벌어서 가지고 파곤해서 딱 왔는데 4사람(남편과 아이 셋)이 방안 그득히 앉아 있는 거 보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내 이 조금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릴까 싶은 생각에...(문정숙)

박상희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는데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될 때도 매우 괴로움을 느꼈다. 설령 몸이 아플 때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은 정말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다. 차라리 몸이 아플지 언정 밖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힘든 상황을 잊을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럽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워둔 것도 없어서 이 일 저 일을 조금씩 건드려보고 해보는 하는데, 지속적인 돈벌이가 되지 못하여 일거리를 찾는 데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근데 또 내가 일을 하고 싶는데 집에 있는 그 시간이 나한테 더 괴로운 거예요. 이래 아파도 정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으면 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복일까 그렇게 생각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힘든 거만 더 생각하는데 내가 일을 하러 나가면

힘든 거를 잊어버리니까 난 또 만족하더라고... 남편이 일을 못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그래 식당도 다니고 뭐 길거리에서 장사도 좀 해보고 길게는 안 했어도 조금씩 안 해본 거 없이 해봤다고 해야 되겠죠. 남편이 생활력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나가게 되더라고요.(박상희)

한편 박상희씨는 혼자서 발버둥치며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 남편을 볼 때 오히려 남편이 일 하려는 의욕을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속이 더 상한다. 혼자서만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산다는 생각에 일 할 의욕도 안 나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꼭 일하는 그 시기 때는 정말 (남편) 수입이 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남자가 또 이렇게 생활력이 없나.. 그런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속이 더 상한 거예요. 여자는 이라고 일을 하고 오면은 남자는 꼭 집에 있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맨 날 이유 달고 뭐 달고 이러니까 정말 나도 다니기 싫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박상희)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남성의 일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가족 내 역할분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 제보자들은 실직 후에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을 원망하고 닦하기도 한다.

하정미씨는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간 등 몸이 안 좋아 막노동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고, 요천 데 덮친 격으로 딸은 고3 때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이 와서 자신이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식당 일을 오래 동안 하다보니 팔과 손가락 등에 인대가 늘어났고, 힘들어도 밥을 굶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인생의 고달픔을 뼈저리게 느낀다.

워낙 처음 결혼해가 (남편이) 보증을 서고 돈은 날리고 뭐 이래 하니까 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이 때까지 고생이 더 많지 싶습니다. 요새는 남의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 팔이고 손가락이고 전부 인대가 다 나가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도 안 하면 밥을 굶으니까..... 또 딸도 아파 누워 있

지 남편도 맨 날 저래가지고 지가 잘못했는데 가면 성을 푹푹 내 썼고. 할 짓이 아닙니다. 재미도 없고. 괴롭죠 뭐. 처음에는 우리 애 아프고 그럴 때에는 제가 막 넘어가고 쓰러지고 이 머리도 다 빠지고 말도 못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살기가 고달프죠. (하정미)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정미씨는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를 한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에 대한 정과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생계 책임자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심부름을 하나 시켜도 (남편이) 있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어떤 때는 위로가 되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내가 참자. 내가 힘이 들어도 참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잘 못 먹어도 입 칠 정도는 하자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고 이래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성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이상하이 우리 신랑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그냥 깊은 마음은 굉장히 불쌍하고 하는 거 보면 밍고 막 그거한테 제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벌어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이 자꾸 생겨요. (하정미)

한편, 제보자들은 생계 책임자로 나서는 힘겨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회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알고 스스로 무능감과 막막함을 느낀다. 자신이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여 자격을 갖추어 놓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며, 적절한 일을 찾지 못할 때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문정숙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라도 여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무능감을 느낀다.

(남편이) 조금 짐사람한테 미안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집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좀 있었으면... 뭐랄까 가진 거라도 있어서 풀었으면 하는데 진짜 풀어질게 있어야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무능한 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때 막 박차고 나가서 정말 남의 집 일(파출부 일) 이런 거 말고 정말 발전적인 거 해 가지고 좀 나아지는 거 그게 왜 안 될까 싶고. 그러니까 매일 비판만 되고 막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문정숙)

곽보경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기업체에도 근무하였고,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타자기로 타이프 치는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실직한 후로 밖에 나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빨간 펜 학습지 선생님이로 잠깐이나마 사회활동을 해 보게 되었다.

나도 지금 밖에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인제 전에 논문 같은 걸 만드는 타이프 직에 근무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에는 그런 데가 없고 인제 그것이 밖에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을 그만뒀 가지고 컴퓨터를 능숙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접하기에는 좀 나이가 그렇고 늦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다면 뭐 특별하게 내가 일 할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는데 딱 박차고 나가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누가 얘기를 하게 돼서 일단 빨간 펜이라도 한 번 나가면서 사람들 접해보면서 한 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곽보경)

허상인씨는 남편이 병으로 실직하고 나서 자신이라도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차고 나갈 용기도 없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 때 자신에게 투자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자신감과 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실직한 남편도 내심으로는 아내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운 자신의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 또 하나의 벽을 느낀다.

(남편이) 당신 나가서 좀 벌어라 소리는 안 하는데 좀 벌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예. 내가 그 뭐꼬 남편이 돈을 못 벌고 그럴 적에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투자를 조금 해 가지고 빚을 배웠으면 남편이 저럴 때 나라도 퍼뜩 뛰어들어서 내가 헤쳐 나갈 수 있을진데. 그 당시는 벌어와 주면 열심히 살려는 노력만 했지 내가 빚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제 남편이 저러다 보니까는 그 때 내가 조금 나한테로 투자를 했으면 내가 빚이든가 지금 뛰어들어서 겁 안내고 할 수 있을진데... 지금은 사실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

문에 못 뛰어드는기라. 겁이 나서도 못 뛰어드는  
기라. 내가 육체적으로는 가서 할 수 있지만 남편  
이 벌어다주고 이럴 적에 돈 많이 모을 꺼 조금만  
모으고 나한테도 투자를 했으면 내가 지금 빚이든  
지 뛰어들어서 할진데 안 배웠기 때문에 아무 것  
도 못하는 거...(허상인)

제보자들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상황을 취업으  
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전업주부  
로서의 생활에 전념한 아내들이라 남편의 실직으로 취업을 하  
게 되더라도 전문직과 경험부족, 혹은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그 활동분야가 파출부 등의 단순한 노동이나 판매  
일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업주  
부였던 실직 가정의 아내들이 취업을 해도 파출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이른바 3D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네이버 뉴스,  
2001)과도 일치한다.

한편, 남편의 실직은 남성 자신의 일을 통한 역할을 상실했  
다는 문제 외에도 남성의 일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가족 내  
권위구조와 역할분배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문제를 가져온다.  
제보자들의 가족에서는 그러한 재구조화와 재협상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힘겨움을 경험한 제보자  
들은 자신의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기  
도 하고, 자신이 힘겹게 세상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남편 탓으  
로 돌리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남자  
가 못하면 여자라도 힘든 세상에 도전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 4. 희망 찾기

제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직이라는 현실을 새롭게 받아  
들이면서, 또 신앙과 자신의 존재가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  
랑 등을 통하여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찾고 있었다.

실직 상황을 원망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  
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실  
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실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족들의 대처  
할 수 있는 힘은 달라진다(Smith & Pergala, 1990)는 연구결과  
처럼 제보자들도 실직이라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미래  
삶의 의욕과 희망까지도 바라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

허상인씨는 실직이라는 현실이 자신의 가족에 닥쳤다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현실  
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지 않다고 한다.

너무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이 내한테 닥쳤으니까  
는 탁탁 받아 들여야지. 그걸 불평, 불만을 하면은  
속이 답답해서 못살아요. 인제 내가 마음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이거를  
자꾸 불만을 한다 해서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허상인)

문정숙씨는 남편이 실직한 후에 멀리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가  
게 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잠깐 하게 되었다. 그때 부부가 서  
로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기  
반성도 하게 되었으며, 가정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경기도 ○○에 남편  
일자리가 나서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나 봐요. 가정에 대한 소중  
함 이런 거도 알게 되고.. 나도 또 나름대로 떨어  
져 있으면서 그러했고.. 저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덜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 낮선데서 혼  
자 일꾼들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힘들 때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변했거든요. 정  
말 안 살고 싶은 그 때, 정말 절박했을 때, 다시  
그런 게 또 계기가 되어 연결되더라고요.(문정숙)

고연숙씨는 지금의 어려운 가족상황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  
막이 있듯이, 지금은 내리막이지만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  
려 화합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서 현  
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은 뭐든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지금은 내려올 대로 내려오는 시점인 거  
같아요. 지금은 다시 화합하려고 서로가 노력을 많  
이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갈 때까지 다 내려  
온 시점이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고연숙)

곽보경씨는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인생을 풍요롭  
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실  
직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었  
고, 실직이라는 상황이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가면  
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골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나무 하

나를 봐도 나무가 저절로 크는 거 같지만 저절로 큰 게 아니잖아요. 비와 공기와 바람과 모든 것을 지나면서 아름답게 꽃도 피우고 자라듯이 인생의 모든 근원이 신앙에 있다고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탈하거나 배반하거나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바람 등을 다 견디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인생의 한 과정에서 실직이라는 경험도 하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곽보경).

또한 배우자의 실직을 경험한 아내들은 신앙과 자신의 존재 가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 등에서도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찾고 있다.

문정숙씨는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성당에 나가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가족 안에서 못다 한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후련함과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음이 방황되고 그럴 때마다 또 주님 안에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위해 가지고 성당에서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들어보고 여기 한달 동안 성당에서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 땐 정말 너무너무 절실해서 거기(교육)에 훌쩍 빠지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맨 마지막에 편지를 다 써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대목서부터 쓰게 해서 다 읽게 했거든요. 그 때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남편에 대한 거 시어머니에 대한 거 또 시누들에 대한 그 미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굉장히 편안했어요. (문정숙)

박상희씨는 실직을 한 남편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자식이나 남편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자각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게 된다. 박상희씨는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남편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Shams, 1993), 사회적 지원을 강하게 받는 실직자들은 지원을 약하게 받는 자들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낮고(Gore, 1978),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보였다(Ensminger and Celentano, 1990; 박혜정, 1999 재인용).

또한 박상희씨는 남편이 비록 생활력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 주어서 다행이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은 생활력 없고 잘 난 사람이 못되지만 그런 유사점이 있어서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한다.

남편도 나에게 의지하고 자식도 다 나한테 기대고 있는 데 정말 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정말 더 힘들 거야 하고... 또 남편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도 남자가 생활력은 없어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틀리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 그러면 내가 또 생각 할 때도 정말 남편이 없으면 아이고 힘들 것 같애 하면서 그 생각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중략)...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남편도 나하고 공통점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딱 사회에 나가면 그 다지 똑똑한 사람이 못 되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서로 비슷해서 이해를 잘 해주고 좋은데 나쁜 쪽으로 바라보면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 하니까 위로가 되요.(박상희)

허상인씨는 남편이 병으로 실직하기 전에도 매우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생활을 해 왔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였고, 허상인씨에게도 좋은 남편이었다. 남편이 병을 얻고 설상가상으로 실직까지 하게 되어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힘내시라'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다. 허상인씨에게는 부모를 생각해주는 자식들이 무척 고맙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된다. 허상인씨는 남편이 실직을 하고 나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 심리적 좌절 속에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허상인씨도 배우자의 실직에 대한 슬픔을 혼자 삭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아픈 남편이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더 가슴 아파 할까봐 남편 앞에서는 절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픈 남편을 잘 돌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며 스스로도 당당해 지려는 마음으로 산다.

진짜 너무 너무 단란한 가족이었거든요. 아빠가 저렇게 되버려 놓으니까는 오히려 아빠를 더 위로를 하는 기라. "아빠 힘내세요. 나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하니까 내가 아빠 용돈 주고 그럴 테니까 아빠 힘내세요". 또 엄마보고도 그래요 "엄마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아빠만 안 아프게만 모시고 사세요 그럼 내가 세월가면 엄마 내가 다 모

시고 살 테니까는..." 평소 때에 아빠나 자식간에 옥신각신하고 막 이런 상태로 살았으면 또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애들이만 했을 때(어렸을 때)부터 너무 화목하게 살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더 아버지, 엄마를 참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중략).... 그러니까는 차라리 속은 너무 너무 힘들어도 당당하게 내가 당신들한테 도움 안 받고 아픈 남편 데리고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내보고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허상인)

곽보경씨는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앙을 통해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신앙의 힘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앞으로도 뭐 특별하게 기대하던가 이런 건 없는데 사회자체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또 의지하고 바라볼 거는 인제 내가 말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앙의 어떠한 희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곽보경)

하정미씨는 남편이 잦은 빚보증에 재산을 날리고 또 한때는 바람까지 피우며 힘들게 하였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하고 몸이 안 좋아 일을 하기 어렵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밖에 나가 식당 일이라는 고된 일을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많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으로 쌓여서 고된 삶일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또한 딸이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들은 그나마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픈 딸과 아들 걱정에 자신은 하루도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며 자식들이 너무 소중하여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라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희망을 찾고 있다.

남편이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남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돈 좀 있으면 남편도 차비 주고... 어제도 월급 조금 받아 가지고 애들 쓸 것 좀 주고 부족해도 애들 뭐 잡비 좀 주고 신랑도 차비 주고.....제가

아무리 힘들게 벌어서 와도 그리 주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저 자신한테 쓰는 거는 10원도 잘 안 써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싶어요. 이제는 뭐 좋아하고 그런 것도 없고 따로 따로 지금 몇 년째 부부관계 하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중략)....저는 가정을 떠나서는 하루도 못살지 싶어요.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뭐 아무리 힘들고 고생을 해도 자식만 잘 되면 나는 희생 봉사...오직 지금 심정은 자식들이 인제 좀 훌륭하게 똑바르게 살길 바라죠. 아들이 참 착해요. (하정미)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과 자신의 존재가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 등을 통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었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들이 실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족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가족들의 대처할 수 있는 힘은 달라진다(Smith & Pergala, 1990)는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직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 남편의 실직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6명의 실직 가정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탐색함으로써 실직한 남편을 둔 아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면접자료 분석 결과 <남편이란 존재>, <힘들어지는 부부관계>, <현실에 대한 힘겨운 도전>, <희망 찾기>라는 4개의 주제 영역을 발견하였다.

실직 가정의 아내들에게 <남편이란 존재>에서는 '원망스러운 사람'이자 '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람'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남편이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때 아내들은 실직을 겪은 남편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힘들게 만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남편이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한편, 남편의 실직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를 탓하면서 남편을 '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남편의 건강을 잘 챙겨주었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주위에서 만류하던 셋째아이를 낳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실직 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오히려 남편을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자책하기도 한다. 또한 실직 당사자인 남편이 힘겨운 적응과정에서 겪는 분노와 무기력 등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당해야 하는 아내들에

게 남편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는 실직이라는 가족 위기 사건 외에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아내들을 괴롭히고 있다.

<힘들어지는 부부관계>에서는 실직 전에 두려웠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이 끊어지면서 '가족 안으로 더욱더 움츠러드는 부부'의 모습이 보여 지고, 외부의 지원이 단절된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의 갈등: 남편에게서 벗어나기'가 시도된다. 실직한 남편들이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인 아내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가족 안으로 점점 더 움츠러드는 남편에 대해 가족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인 아내의 지원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실직이라는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아내들이 배우자에게 지지적인 자원 역할을 해 주기에는 정보제공과 교육적인 개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움츠러든 가족 안에서 부부 갈등이 더 표출되고 아내들은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현실에 대한 힘겨운 도전>에서는 남편이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쉽게 충족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아내들 스스로 생계를 위한 힘겨운 도전을 시작한다. 남자가 못하면 여자라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도전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그리고 취업 기회의 부족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막다른 벽을 느끼게 되면서, 취업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신에 대해 자책하기도 한다. 그 동안 주로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에 전념한 아내들이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단순한 노동이나 판매일 등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을 하는 아내들은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

<희망 찾기>에서는 체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직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이고, 어디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가를 볼 수 있다. 실직 상황을 원망하고 남편 탓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신앙과 자신의 존재가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 등을 통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었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실직을 경험한 아내들은 남편 탓을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혹은 남편의 실직 원인이나 실직 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 시켜 스스로 심리적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기도 한다. 실업충격 완충장치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기본적인 안전망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 남편의 아내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최규련, 1999). 이러한 현실에서 실직 남편의 아내들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실직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 시키면서 떠안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불합리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하여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또한 실직이라는 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잘못인가를 가리고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의 가족관계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가족 위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직 당사자인 남편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감당해 내야 하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이 실직이라는 사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실직으로 인한 아내의 심리적 증상은 남편의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남편보다 4개월 후에 더 늦게 노출되고, 그 정도도 남편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Liem & Liem, 1988), 실직에 대한 아내의 심리적 증상이 남편만큼 크지 않을지라도 남편의 실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아내의 고통과 괴로움은 매우 클 것임을 통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직 가장 아내들이 실직에 대한 남편의 정서적 반응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남편의 실직으로 아내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찾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실직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아주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실직 당사자인 남성이나 여성 가장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 온 직업 훈련 등의 기회는 앞으로 실직 가족의 전체 가족구성원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직한 남편과 더불어서 위기 극복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아내들이 삶의 의욕과 목적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넷째, 실직이란 사건이 실직 전에 두려웠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을 끊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실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가족은 혼자 고립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위기 돌파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가족 위기가 건강하게 개방되어질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 가족의 구성원들이 외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편의 실직 후에도 아내들이 남편을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 생각하거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상실,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가정의 긴장과 갈등을 더욱더 초래할 수 있다. 실직이라는 가족 위기 사건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남성의 일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가족 내 역할 분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의 체보자

들에서도 실직한 남편이 여전히 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놓아 버리지 못할 때, 생계를 위해 아내가 힘들게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협조가 따라주지 않을 때 또 한번 남편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책임을 인식시키고, 가족의 삶의 방식과 가족 내 역할 분배를 어떻게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가족들이 실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족들의 대처할 수 있는 힘은 달라진다(Smith & Pergala, 1990)는 연구결과처럼 제보자들과의 면접결과에서도 실직이라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 삶의 희망을 찾는 모습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실직 남편의 아내들은 위기상황에서도 삶의 의욕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새롭게 가져볼 수 있다. 실직 남편의 아내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 삶의 희망을 찾아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실직한 가족의 구성원 중 아내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직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분석하였기에, 남편과의 상호작용이나 그 외 자녀 등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가족의 역동을 관계와 가족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볼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실직 가족의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가족의 역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실직 남편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삶의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1월 11일

【참 고 문 헌】

국민일보(2001). 넘치는 실직·무너지는 가정. 2001. 5. 7.  
 김양희·곽인숙·윤정혜·이승미·정현숙·최규련·최현자(1999).  
 가장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93-104.  
 김용숙·서혜경·이영숙(1998). 가장의 실직에 따른 가정생활 변  
 화. **한국가정과학회지 1(2)**, 12-22.

김현경(2000). **중년 남성의 실직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위 청구논문.  
 네이버 뉴스(2001). 여성가장 시대, 남편대신 나선다. 2001. 1. 26.  
 류진아(1999).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직업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멘터(mentor)와 멘티(mentee)에게 미친  
 상호적 발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1호**, 147-  
 172.  
 박혜정(1999). **종교성과 실직자의 심리상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성혜영(1999). **실직가장의 가족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1998). 실직이 개인의 사회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  
 제 불황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67  
 -95.  
 이민경(2000). **실직 경험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 구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대처방식을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지·신경일·최순옥·김숙남·이부현(2000). 실직여성가장  
 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검증. **대한간호학회지 30(4)**, 982-994.  
 장혜경·김영란(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  
 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겨울호**, 135-164.  
 정진백(1999). **실직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정특성과 자아  
 개념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경(1999). **실직으로 인한 가정분위기, 부모양육태도 및 아  
 동정서의 연관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2001). 정리해고자, 가족관계-건강악화. 2001. 10. 10.  
 조성희(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실직  
 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희선(2000). 실직 여성가장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  
 스: 가족결속력 및 대처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18(3)**, 25-37.  
 정환구(1999). **부모의 실직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환경과 부모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인  
 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 - 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7(3)**, 47-61.  
 한겨레신문(1999a).(인터뷰) 서울 YWCA 새회장 이행자씨. 1999.  
 1. 26.  
 한겨레신문(1999b).(생활수첩) 가족해체 방지 프로그램 등. 1999.  
 4. 7.  
 한국경제(2000). 희망 만들기 열린 학교. 2000. 6. 29.  
 Beckett, J.O.(1986). Plant closings: How older workers are  
 affected. **Social Work 33**, 29-33.  
 Dail, P.W.(1988).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Public**

- Welfare* 46, 30-34.
- Gilgun, J. F., Daly, K. & Handel, G.(eds)(1992).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 Gore, S.(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Jones, L.(1991). Unemployment: The effect on social networks, depression, and reemployment opportunit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5(1/2), 1-22.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1987).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17, 959-961.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5.
- Liem, R. & Liem, J. H.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6.
- Shams, M.(199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employed british asian m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175-186.
- Smith, S, & Pergala, J.(1990). Stress management strategies for families florid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 1-6.
- Taylor, S.J. & Bogdan, R.(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s inc.
- Vosler, N. R. and Page-Adams, D.(1996).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workers at the time of a plant closing.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3(4), 25-42.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9).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ntersection of the paid worker, spouse, and parent roles with the role of the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25-738.
- Walsh, S., & Jackson, P. R.(1995). Partner support and gender: Contexts for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68(3), 253-268.
- 노동부. [www.work.go.kr](http://www.work.go.kr)